

조선인들의 로씨야로의 이주 150돐을 계기로 진행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백두-한나〉 자동차행진》이 온 겨레와 세계평화에호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뜨거운 호응 속에 성과적으로 끝났다.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제1부위원장 김철성 로씨야고려인통일연합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조선반도종단자동차행진단은 지난 7월 7일 로씨야의 수도 모스크바를 출발하여 8월 19일 조선반도의 남단에 있는 부산까지 약 1만 5 000km의 머나먼 로정을

이제 꿈인가. 조국에 큰절을

이번에 온 겨레와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로씨야-조선반도종단자동차행진이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는것은 민족의 통일을 위해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하고자 하는 해외동포들의 소원과 통일애국의지를 귀중히 여기고 적극 내세워준 공화국정부의 세심한 관심과 동포애적조치가 있었기때문이다. 공화국정부에서는 해외동포들의 발가와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이 자동차로 공화국의 경내를 경유할수 있도록 허락해주었으며 방문과 자동차행진의 나날 행진단성원들이 자그마한 불편과 어려움도 없도록 모든 조건을 보장해주었다. 행사기간 도처에서 각계층인민들이 연도에 펼쳐나서 자동차행진을 뜨겁게 환영하고 배려준것도 행진단성원들을 크게 고무해주었다.

하기에 행진단 단장인 김철성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제1부위원장 겸 로씨야고려인통일연합회

백두에서 한나까지 우리는 하나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백두-한나〉 자동차행진》을 보고

자동차로 달려서 자기들의 뜨거운 통일념원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이번 자동차행진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열렬히 지지성원하는 재로씨야동포들의 뜨거운 마음을 잘 보여주었으며 온 겨레의 통일열기를 더욱 북돋아주는 뜻깊은 계기로 되었다.

위원장인 《우리 조선이 하나였던 150년전에 선조들이 이번에 우리가 온 이 길로 로씨야로 넘어갔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3~5세가 그 길로 조국땅을 밟게 되었다. 공화국정부에 사의를 표시한다. 조선반도종단자동차행진을 할수 있게 해주것은 조국이 조선인들의 로씨야이주 150돐을 맞는 재로동포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감격에 겨워 말하였다.

행진단의 다른 한 성원은 《이번에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동포들이 조국땅을 다시 밟을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하였으며 다른 한 성원은 《이제 꿈인가 생시인가. 우리가 정말 조국땅에 들어선것인가. 오래전부터 꾸어오던 꿈이 오늘에야 비로소 실현되었다. 자동차행진단 전체 성원들을 대표하여 자동차행진이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게 하여준 조국에 큰절을 드린다.》라고 말하였다.

강대하고 아름다운 나라

8일 련차로 국경을 넘어 두만강역에 도착한 자동차행진단성원들은 라선시, 청진시, 백두산, 원산시, 금강산, 평양시를 비롯한 로정을 따라 차를 달리면서 강성국가를 건설하고있는 공화국의 벽안 현실과 인민들의 행복만 모습, 아름다운 산천경계를 보며 깊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10일 그들은 백두산정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백두-한나〉 자동차행진》출정식을 가졌다.

민족의 넋이 뿌리내리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항일혁명의 발자취가 어리어있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출정식을 가진 무한한 궁지와 기쁨속에 그

들은 자기들의 심정을 격정에 넘쳐 토로하였다. 박 월련전 로씨야 연해변강고려인통일연합회 위원장은 《렇게도 갈망해온 백두산에 오르기 정말 격동된 심정을 억제할수 없다. 백두산의 장엄함에 넋을 다 잃을 지경이다. 바로 이런 곳에서 항일대전을 벌리신 김일성주석님이사야말로 과거 하늘이 낸분이시고 장군중의 제일 으뜸의 장군이다.》라고 격정을 터치었다.

백두산자기를 참관한 행진단성원들은 삼지연대기념비와 백두산 밀영고향집, 사평부귀틀집 등을 돌아보면서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어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민족재생의 서광을 안아오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참관한 행진단 단장은 인적도 없는 천고밀림속의 이 수수한 통나무기둥집에서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시었다고 생각하니 격정을 금할수 없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렇듯 탄생도 인민적이여서 생의 마지막순간에도 인민을 위한 련차에 계시었다. 이 성스러운 생가에서 고보니 장군님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계시었던 사평부귀틀집과 사적물들을 보면서 주석님과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정신이 오늘도 살아있음을 폐부로 절감한다.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은 우리 민족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자기의 뜨거운 진정을 토로하였다.

민족의 통일념원을 안고 조종의 산 백두산을 출발한 자동차행진단성원들은 조국인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여러 지역을 통과하였다.

혜산시와 함흥시를 거쳐 함구문하도시 원산시에 도착한 그들은 학생소년들의 야영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이 갖추어져있는 송도원국 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면서 야영생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보며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행진단성원 안향진은 최상의 조건을 갖춘 야영소에서 조국의 아이들뿐아니라 여러 나라 학생소년들도 야영생활을 한다니 놀라기 그지없다. 이곳에서 학생소년들은 휴식만이 아니라 과학지식도 습득하고 몸단련도 하고있다. 야영생들이 정말 부럽다. 이렇게 완벽한 야영소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경에하는 김정 은 원 수 님 께 서 위 대 한 대원수님들의 후대사랑을 그대로 이어가고계신다는것을 깊이 느낄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행진단은 명승지 삼일포와 세계의 명산 금강산을 돌아보며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기도 하였다.

기묘한 봉우리들과 깎아지른듯한 절벽들, 장쾌하고 웅장한 폭포, 수려한 숲을 자랑하는 금강산의 독특한 절승경계를 한껏 부감하면서 그들은 조선민족된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행진단 단장 김철성은 금강산의 경치가 참으로 장관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와되지 못하면 일생 후회할것이다. 북과 남, 해외 온 겨레가 금강산정치를 마음껏 구경할수 있는 통일의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것을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14일 수도 평양에 도착한 행진단성원들은 만경대를 방문하고 시내 여러곳을 참관하면서 변모된 조국의 모습에 저마다 감탄을 표시하였다.

김일성대원수님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여주신 위대한분이사이다. 천출위인들을 모시어 우리 조국은 끝없이 부강번영할것이라고 한 행진단 단장, 웅장하면서 또 현대적인 건물들이 많고 또 그 멋진 집들에서 평범한 근

로자들이 산다고 하니 얼마나 믿기 어려운 현실인가, 이번 조국방영생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보며 한 최 레오니드 우즈베끼스만고려인협회 부회장, 문수물놀이장에서 저렇게 웃고 떠들며 휴식의 한때를 마음껏 보내고있는 행복넘친 인민들을 서방에서는 조선인민들이 굶주리며 가난하게 살아간다고 비평하고있다. 얼마나 어리석은짓인가, 조선의 현실을 똑바로 알자면 누구나 여기에 와보아야 한다고 한 최명철 로씨야대련도련맹 고문, 미국이 조선을 눈에는 가시처럼 여기는것은 인민들이 좋은 제도하에서 행복하게

통 일 , 통 일

이번 자동차행진의 전과정을 지켜보면서 북과 남의 겨레가 커다란 감흥을 받은것은 조국통일에 대한 해외동포들의 열망이 얼마나 높고 뜨거운가 하는것이다.

몸은 비록 해외에 있어도 민족의 넋을 잃지 않고 조선반도의 통일을 위해 애국의 마음과 숨은 노력을 바쳐가고있는 로씨야고려인 통일연합회를 비롯한 해외동포단체들과 해외동포들이다.

지금까지 조선반도를 돌로 가른 분렬장벽에 파렬구를 내기 위해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고 군사분계선을 넘어간 남녘의 인사들은 있었다. 그러나 자동차행진으로, 그것도 민족의 통일열망이 더욱 끓어오르는 8.15를 계기로 북과 남을 자동차로 종단한 실례는 없었다.

그 뜻깊은 조선반도종단자동차행진의 첫 레프를 이번에 로씨야에 살고있는 동포들이 끊었다.

사실 로씨야-조선반도종단자동차행진을 결심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 전과정은 결코 수월한 과정이 아니었다. 모스크바를 출발하여 까자흐스탄, 우즈베끼스만 등 여러 나라들을 거쳐 조선반도를 종단하기까지의 거리는 1만

살고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고 존엄높이 살아가기때문이다. 이처럼 화목하고 좋은 제도를 절대로 잃어서는 안된다. 조선은 땅도 사람들도 아주 순결하다. 지구상에 이렇게 신성한 나라가 있다는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경탄한 로씨야사람인 하비브라흐마노브 알베르트...

정녕 그들이 터친 이 꾸밈없는 진실의 목소리들은 자주와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확신있게 나아가며 최후승리를 앞당겨오고있는 공화국의 위업의 정에 당당과 밝은 미래에 대한 뚜렷한 확증이다.

통 일 , 통 일

5 000여km에 달하는 머나먼 로정이었다. 그 길에는 평탄한 도로길만이 아니라 험한 령길도, 사막의 길도 있었고 또 행진단성원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역수로 퍼붓는 비, 질은 안개도 있었다. 너무도 멀고 험한 길이여서 행진대가 로씨야의 연해주지역에 들어설 때까지 여러대의 자동차가 파손되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누구도 그 길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재로동포들, 해외동포들의 통일념원 안고 자동차행렬은 쉬임없이 달려갔다.

그들이 민족의 성산 백두산정에 올라 천지의 맑은 물이 바라보이는 장소에서 자동차행진의 출정식을 가진것도 백두에서 한나까지 하나의 지맥으로 이어져있는 조국강산을 기어이 하나로 되게 하려는 애국애족의 일념에서였다. 하기에 뜻깊은 출정식의 나날 김철성 자동차행진단 단장은 오늘 백두산에서 시작하는 통일의 이 걸음에 수천만겨레가 합세하고 그것이 통일에 가는 큰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격정에 겨워 말하였다.

이런 그들의 아름다운 소행에 감동을 금치 못하며 저마다 연도

에 펼쳐나와 《조국통일!》을 웨치던 공화국의 남나로소들.

분계연선도시 개성에 도착하여 여러곳을 돌아보고 위대한 대원수님의 불멸의 통일철명비가 솟아있는나 관문점도 참관한 행진단성원들은 철세위인들의 통일애국의 뜻과 유훈을 받들어 민족의 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 더욱 분투할 마음속결의들도 다지였다.

16일 그들은 자동차를 타고 분계선을 넘어 서울로 향하였다. 그 때로부터 남조선의 여러 도시들을 돌며 19일 부산에 이르기까지 통일념원안고 자동차를 달린 행진단성원들의 가슴가슴은 민족통일위업에 특색있는 하나의 기여를 하였다는 남다른 긍지로 부풀어있었다. 이에 대해 남녘의 각계층 인민들도 저마다 찬사를 표시하였다. 남조선의 언론들도 《우리가 못하는 일을 고려인은 해냈다. 북과 남사이를 자동차를 몰고 돌파했다.》며 자동차행진소식을 널리 보도하였다.

참으로 이번 자동차행진은 갈라져서는 살수 없고 하나로 합쳐야만 하는 조선민족의 통일의지를 만방에 파시하며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또 하나의 특색있는 한페이지를 수록한 자랑스러운 미저였다.

내외의 반통일세력들이 복천핵전쟁연습과 같은 무모한 불장난으로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점경으로 몰아가면서 조선반도의 분렬을 영원한것으로 만들려고 아무리 모지름을 쓰며 발악해도 우리 민족의 뜨거운 통일념원은 절대로 막을수도 꺾을수도 없다.

오늘은 비록 로씨야에서 수십명의 동포들이 자동차를 타고 달려와 분렬의 장벽을 넘어섰지만 조국해방 70년이자 조국분렬 70년이 되는 해년에는 저기 남아메리카주에서, 유럽에서 아니 지구의 각 곳에서 해외동포들이 저마다 달려와 분렬의 장벽을 헤치는 과감한 통일애국행진을 벌리게 될것이라.

북, 남, 해외의 겨레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벌리는 조국통일운동의 최후승리는 결코 머지않은 미래에 있다.

백두에서 한나까지 우리 조선민족은 하나이다.

본사기자 서 희



민족분렬의 역사를 끝장내고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서울에서 8.15범국민집회, 8.15로동자집회 진행

남조선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광복69주년 8.15자주통일대회 추진위원회》의 공동주최로 15일 서울역광장에서 일본의 《집단지자위권》반대, 조선반도평화통일을 위한 8.15범국민집회가 진행되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조국해방의 날을 맞이한 우리들의 꿈은 바로 평화통일이라고 말하였다.

민족분렬의 역사를 끝장내

고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남북공동선언들을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고 연명하였다.

그들은 각계 민중이 련대를 강화하여 평화통일을 위해 힘차게 투쟁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집회에서는 호소문이 랑독되었다.

미국과 남조선의 《울지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언습책동과 일본의 《집단지자위권》행사, 야스쿠니진자참배 등 군국주의부활책동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정부》는 북을 겨냥한 미국과의 모든 전쟁연습을 중지하고 《5.24조치》를 해제하며 평화와 협력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호소문은 강조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서울역광장에서부터 서울시청앞광장까지 시위행진하였다.

* * *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주민보》에 의하면 조국해방

69돐을 맞으며 남조선의 민주로총이 15일 서울역광장에서 8.15로동자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민주로총 위원장 신승철은 지금 이 땅에서는 시대세력이 로동자민중을 억압하며 집권행세를 하고있다고 개탄하였다.

조선반도평화를 위협하는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은 남조선, 미국, 일본합동군사연습으로 강화되었다고 비난하였다.

《정부》의 기만적인 정책에 의해 아직도 수백명을 바

다에 수장시킨 참사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있으며 민주로총 핵심성원들이 《보안법》의 울가미에 걸려 탄압당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그는 로동자들이 힘을 합쳐 조선반도의 평화통일을 실현할것이라고 연명하였다.

이어 결의문이 랑독되었다.

결의문은 《정부》의 반통일정책을 분쇄하고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끝까지 리행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